

# 요즘 10~20대는 ‘인스타그램’ 이다



###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최근 1년 사용자 표본조사 138만명 증가...트위터·틱톡 순, 페이스북은 감소

최근 1년간 10·20대 사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소셜미디어(SNS) 애플리케이션(앱)은 인스타그램으로 나타났다. 와이즈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8일 10·20대 소셜미디어 앱 사용자, 사용 시간, 실행 횟수 변화를 조사해 이같이 발표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0·20대 사용자가 가장 증가한 소셜미디어 앱은 인스타그램으로 지난해 10월 710만 명에서 올해 848만 명으로 138만 명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 명, 밴드가 2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10·20대 사용 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셜미디어 앱은 인스타그램으로 지난해 10월 38억 분에서 올해 10월 52억 분으로 14억 분 증가했다. 틱톡은 27억 분에서 35억 분으로 8억 분, 트위터는 23억 분에서 27억 분으로 4억 분 늘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18억 분에서 11억 분으로 7억 분 감소했고 밴드는 0.4억 분, 카카오톡은 0.1억 분 줄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제공〉

같은 기간 트위터는 285만 명에서 349만 명으로 64만 명 늘었다. 반면, 페이스북은 429만 명에서 402만 명으로 27만 명 감소하며 10·20대 사용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앱으로 조사됐다. 그 뒤로 카카오톡이 5

전년 동월 대비 10·20대 실행 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소셜미디어 앱은 인스타그램으로 지난해 10월 57억 회에서 올해 10월 98억 회로 41억 회 늘었다. 트위터는 98억 회에서 104억 회로 6억 회 증

가했다. 페이스북은 20억 회에서 13억 회로 7억 회 감소했다. 밴드는 2억 회, 카카오톡은 0.6억 회, 틱톡은 0.4억 회 줄었다. /연합뉴스

## ‘찾아가는 과학관’ ...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



국립광주과학관은 최근 ‘2022 찾아가는 과학관’을 개막해 과학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공하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으로는 과학쇼(로봇댄스 공연, 드론체험), 과학전시물 관람, 천체관측, 블록코딩 교육, 유리구슬 만화경 만들기, 빛 분수 등 고래 만들기 등이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후원회를 통해 진행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2일을 시작으로 2개월에 걸쳐 나주와 정읍, 익산 등 11개 지역 13개교 5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는 호남권역 소외지역의 과학문화 수혜 격차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찾아가는 과학관’ 외 과학꿈나무 초청사업 ‘사이언스 캠프’, ‘휴관일 초청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6700여 명의 아이들을 방문·초청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국립광주과학관의 이동식 과학차량(루체리움 과학스쿨)과 이동식 천체관측차량(루체리움 스타카)이 학교를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제

##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방역시스템 강화

### ‘KT AI 방역로봇’ 운영...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KT전남전북광역본부부는 최신 방역 기술과 인공지능(AI) 로봇을 결합한 ‘KT AI 방역로봇’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

AI방역로봇은 청사 로비와 각 교육 시설을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며 실시간 방역을 진행한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사업용 운전자 약 2만명과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시민 교통안전교육 약 3만명, 어린이교통공원 약 2.5만명 등 매년 약 7.5만명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광주 유일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이다.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플라즈마 방식으로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방역할 수 있으며 공기청정과 세균 박멸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연수원을 찾는 운수종사자를 비롯해 이용 시민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역로봇을 도입했다.

광주교통문화연수원 김병수 원장은 “방역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연수원 방문객에게 한층 더 강화된 방역시스템을 제공하게 됐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카카오 ‘떡통 사태’ 피해 구제 신청 접수 마감

### 사례 집계한 뒤 건수·유형 공개...10만 건 안팎 접수 추정

카카오가 7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떡통 사태’ 피해 구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형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날 중으로 집계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에 올린 ‘사용자분들께 전하는 카카오팀의 편지’에서 지난달 19일 시작한 피해 접수가 이날 0시 기준으로 마감됐음을 알리며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 이야기를 전해준 분들과 불편을 겪은 모든 사용자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감사에서 당일 현재 약 4만5천 건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사례를 분류하고 있으며, 신중하게 집계 작업을 마친 이후 건수와 유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일반 사용자 외에 자영업자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무료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은 만큼 총 19일간 10만여 건을 웃도는 피해

가 접수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카카오는 이들에 대한 보상 예상액 추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우선 유료 이용자 보상액은 약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접수한) 불편 사항들은 카카오팀 모두가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해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드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사람 춤동작 그대로...매일 두차례 ‘로봇댄스’ 공연



국립광주과학관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로봇댄스 공연 콘텐츠를 확충했다. 〈사진〉

뿐만 아니라, 비인기 콘텐츠를 삭제하고 신규 콘텐츠 2편을 추가했다. 추가된 콘텐츠는 관람객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호도 조사 결과 BTS의 ‘Dynamite’와 ‘아기상아’ 두곡이다.

로봇댄스 공연은 인간을 모사한 휴머노이드들이 인기곡을 배경으로 사람의 춤동작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다. 최근 국립광주과학관은 공간 확충으로 더 많은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해 기존 3D영상관에서 중앙전시장으로 이동했다.

로봇댄스 공연은 국립광주과학관에서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3시 30분 2회 운영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unhae Insurance Co., Ltd. featuring a man and woman holding a long strip of paper. Text: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and Sunhae Insurance Co., Ltd. logo.